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5 1·2
www.ucac.or.kr

SOOHYUNJAE COMPANY & CHEONJI THEATRE PRESEN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보는 아름다운 연극

황금연못

On Golden Pond by Ernest Thompson



우리 시대의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 / 국민배우 이순재, 신구, 나문희, 성병숙 출연!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은 tvN '꽃보다 할배'의 국민배우 이순재, 신구 출연!
'직진순재'와 '구야형'을 드디어 무대에서 만나다! 까칠&귀요미 할배들 Coming Soon!
MBC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 8년 만에 다시 이순재와 부부로 출연하는 국민엄마 나문희,
그리고 연극계 베테랑, 명품배우 성병숙 출연! 실버 파워는 계속 이어진다!

황금빛 호수처럼 빛나는 사랑과 인생 /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아름다운 연극!

꿈같은 청춘은 어느 새 지나가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노만,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노만의 독설을 묵묵히 받아주며 그를 지탱해 주는 아내 에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따로 살아온 고집쟁이 외동딸 첼시,
각기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첼시의 남자친구 빌과 그의 아들 빌리,
등장인물의 갈등과 해학 넘치는 대사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인생 철학과 가족의 사랑!

2015. 2. 7(토) 오후 3시, 7시 / 2. 8(일) 오후 2시, 6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작가 어니스트 톰슨 (Ernest Thompson) 번역 문삼화 연출 이종한 제작 극단 천지, (주)현재컴퍼니
문의 문예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 인터파크 1544-1555 | www.ticket.interpark.com
관람등급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o n t e n t s



04

기획공연

_ 황금연못



14

시립예술단 공연

- _ 울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 _ 울산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
- _ 울산시립무용단 新 비나리
- _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기획전시

- _ 2015년 기획전시
- _ 명화속의 인문학 이야기전



24

예술을 말하다

-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9)
-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 _ 예술축제를 찾아서

공연·전시가이드

- _ 1·2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5년 1·2월호

통권 181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기획·편집 박용하·이미경

편집 박용운, 시미정,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SOOHYUNJAE COMPANY & CHEONJI THEATRE PRESEN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보는 아름다운 연극

황금연못

On Golden Pond by Ernest Thompson



POINT 1. 아카데미 3관왕의 세계적 명작 / 2015년 겨울, 연극으로 만나다!

1990년대 대표 미국 극작가 어니스트 톰슨의 처녀작이자 출세작!
1979년 브로드웨이 공연으로 화제몰이 성공!
1981년 제작된 영화로 1982년 제54회 아카데미상 남·여우주연상, 각색상 수상!
각종 영화제 17개 부문 수상, 20개 부문 노미네이트 된 명작을 연극으로 만나다!

POINT 2. 우리 시대의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 / 국민배우 이순재, 신구, 나문희, 성병숙 출연!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은 tvN '꽃보다 할배'의 국민배우 이순재, 신구 출연!
'직진순재'와 '구아형'을 드디어 무대에서 만나다! 까칠&귀요미 할배들 Coming Soon!
MBC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 8년 만에 다시 이순재와 부부로 출연하는 국민엄마 나문희,
그리고 연극계 베테랑, 명품배우 성병숙 출연! 실버 파워는 계속 이어진다!

POINT 3. 황금빛 호수처럼 빛나는 사랑과 인생 /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아름다운 연극!

꿈같은 청춘은 어느 새 지나가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노만,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노만의 독설을 묵묵히 받아주며 그를 지탱해 주는 아내 에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따로 살아온 고집쟁이 외동딸 첼시,
각기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첼시의 남자친구 빌과 그의 아들 빌리,
등장인물의 갈등과 해학 넘치는 대사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인생 철학과 가족의 사랑!



Synopsis

“잘었어요! 나의 황금연못!”

황금빛 호수처럼 빛나는 가족의 사랑,
아름다운 인생

노년의 노만과 그의 아내 에셀은
‘황금연못’이라 불리는 호숫가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와의 불화로 오랫동안 소식을 끊었던 외동딸 첼시가 노만의 80세 생일을 기념할 겸 남자친구 빌과 그의 아들 13살 빌리를 데리고 별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첼시는 빌과 유럽여행을 떠나기 위해 노부부에게 빌리를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빌리와 함께 여름을 보내야 하는 노만은 어쩔지 마땅치 않은데...

Cast



01_이순재 노만 세이아 주니어 02_신 구 노만 세이아 주니어 03_나문희 에셀 세이아 04_성병숙 에셀 세이아
05_우미화 첼시 세이아 웨인 06_이주원 찰리 마틴 07_이도엽 빌 레이 08_홍시로 빌리 레이

Performance Guide

2015. 2. 7(토) 오후 3시, 7시 | 2. 8(일) 오후 2시, 6시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작가 어니스트 톰슨 (Ernest Thompson) 번역 문삼화 연출 이종한 제작 극단 천지, (주)수현재컴퍼니
문의 문예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 인터파크 1544-1555 | www.ticket.interpark.com
관람등급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2015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신년음악회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띠해를 맞이하여, 양의 순한 기운과 청색이 상징하는
새로움과 신비함, 젊음과 영원함이 넘치는 새롭고 싱그러운 한해를 도약하는 소망을 담아
신년음악회를 마련하였다.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시작하는 이번 연주회는 경쾌하고 선율이 풍부한 서곡이다. 이어 피바디 음대와 동(同) 대학원을 마치고 예일음대에서 Artist Diploma를 취득 하고, KBS교향악단과 대전시향 등과 협연하고 「Trio Altus」를 창단하여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미정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43을 연주한다. 24개의 변주곡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아노의 화려한 기교와 색채를 감상할 수 있다.

휴식 이후 메인곡은 비제의 대표적 오페라 작품인 '카르멘' 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인 카르멘 제1, 2모음곡을 선사한다. 태양의 나라 스페인 세빌리아 지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페라 '카르멘' 은 '하바네라', '꽃 노래', '투우사의 노래' 등 친숙하고 관능미 넘치는 선율과 함께, 화려한 색채감, 이국적인 정서, 깔끔한 극적 구성이 어우러져 정열의 집시 여인 '카르멘' 과 순수한 청년 '호세' 와의 비극적 사랑이 주는 감동을 원작의 깊이 그대로 전달한다.

마지막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로 장식한다. 왈츠곡 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곡은 유유히 흐르는 도나우 강 양쪽 언덕의 아름다운 풍경과 물 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연상케 한다.

온 가정에 안녕과 평화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담은 울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를 통해 뜻 깊은 한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

Program

- 로시니 /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Rossini - Der Barbieri VON Seville Overture, E Major
-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43
Rakhmaninov /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 휴 식 -
- 비 제 / 오페라 '카르멘' 제1, 2모음곡
Bizet / Opera 'Carmen' Suite 1, 2
- 제1모음곡 Suite no.1
 1. 전주곡 Prélude - 아라고네즈 Aragonaise
 2. 간주곡 Intermezzo
 3. 세기딜라 Séguédille
 4. 알카라의 용병 Les Dragons d'Alcala
 5. 투우사 les Toréadors
- 제2모음곡 Suite no.2
 1. 행진 Marche contrebandiers
 2. 하바네라 Habanera
 3. 야상곡 Nocturne
- J. 슈트라우스 /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J. Strauss / An der schonen, blauen Donau op.314



유 미 정 피아노

Performance Guide

2015. 1. 16(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피아노 유미정
※ 초등학생은 가급적 2층에서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5 신년음악회 제 93 회 정 기 공 연 “Pioneer & Dreams”

타악양상블, 목관5중주, 오르간과 어우러진 합창
서부개척시대를 묘사한 기발하고 재미있는 합창

새로운 꿈과 도전을 격려하는 2015년 신년음악회!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조익현 객원지휘자와 함께하는
울산시립합창단의 2015년 첫 정기연주회

2015 을미년 희망찬 새해, 울산시립합창단이 제93회 정기연주회 2015신년음악회로 힘차게 그 시작을 알린다.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제93회 정기연주회는 “Pioneer & Dreams” (개척자와 꿈)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었다.

첫곡 Carl Orff의 카르미나 부라나 서주 Fortuna imperatric mundi (운명, 세상의 여왕이여) 중 제1곡 O Fortuna (오 운명 이여)는 압도적인 타악반주로 시작되는데 누구나 한번쯤 들어 봤을 만한 익숙한 곡이다. 큰 북을 사용해 더욱 웅장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화려하고 엄청 큰 스케일에 압도되게 만든다. 제 2곡 Fortune Plango Vulnera (운명의 상처에 슬퍼하며)에서는 남성합창이 웅장한 반주와 함께 뿔어져 곡의 긴장감이 한 층 고조된다. 제1,2곡에서는 모든 것이 운명에 지배되는 것이므로 운명앞에는 모든 것이 복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운명의 위대한 힘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 이순교의 “백두산아” 가 피아노, 오르간, 팀파니, 대북, 공, 스네어드럼, 드럼과 함께 하는 합창으로 연주되며 타악 반주와 함께 분위기가 고조되고 에릭 위태커의 “레오나르도가 비행기를 꿈꾸다”가 이어진다. 이 곡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꿀 때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미국 태생 에릭 위태커는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현대합창작곡가 중 하나이며 줄리어드에서 작곡을 공부한 그는 1980년대부터 새로운 형태의 합창음악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의 많은

합창곡들 중 “레오나르도가 비행기를 꿈꾸네”를 대표작으로 말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1년에 초연된 이 작품은 Charles Anthony Silvestri의 시에 붙인 곡으로, 천재화가이며 무기 제작자요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비행기 제작을 꿈꾸며 시도한 것을 상상하게 해 주는 환상적인 곡이다.

타악기와 소음을 자유로운 리듬 아래 적절히 배치하면서도 현대화성의 오묘한 조화가 돋보이도록 구성된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 “The Settling Years” (서부개척시대)의 작곡가 Libby Larsen(리비 라슨)은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여류작곡가이며 소규모 실내악에서부터, 성악곡, 합창곡, 대규모 오케스트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곡하고 있다. The Settling Years(1989)는 서부 개척시대를 묘사하는 저자가 다른 3개의 시로 되어 있다. 목관5중주의 편성과 3악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서부개척시대에 악당들이 마을에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우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축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합창단원들이 발을 구르기도 하는 등 재미있는 연출들이 나타난다.

한껏 고조된 분위기의 공연은 John Rutter(존 루터)의 “음악은 언제나 당신 곁에” 와 송창식 작곡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내나라 내겨레”로 차분하게 마무리 된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꿈을 꾸며 계획을 세운다. 객원지휘자 조익현은 울산 시민들의 이러한 꿈과 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공연의 주제를 “Pioneer & Dreams” (개척자와 꿈) 로 정하고 이에 맞는 레퍼토리로 구성하였다.

삭막한 경쟁사회와 반복적인 일상에 지친 어른들, 상처받은 청소년들, 꿈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꿈에서 원대한 꿈까지 어떤 것이든 꿈을 꾸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내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울산시립합창단 2015년 신년음악회 “Pioneer & Dreams” 에 오셔서 새로운 꿈과 도전을 음악으로 마음껏 응원 받으시길 바란다.

지휘자 조익현

서울대학교 작곡과 (이론전공)와 동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한 지휘자 조익현은 미국 북텍사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합창지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달라스 유학시절 “달라스 코리안 챔버 콰이어”라는 전문 합창단을 창단하여 교민 사회뿐만 아니라 미 주류 사회에 한국음악인의 영향력을 보여 주기 시작한 후, 달라스 챔버 오케스트라, 달라스 여성 합창단 등을 창단하여 달라스 및 텍사스 한인 사회에 음악의 부흥을 일으켰었다. 또한 UNT 최고의 합창단인 A Cappella Choir와 Canticum Novum 등 미국의 여러 합창단을 지휘 및 협연을 하였으며,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최고의 연주 홀 중의 하나인 달라스 마이어슨 심포니 센터에서 합창단 공연을 이끌었다. 조익현 지휘자는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전체 졸업생 중 1명에게 수여되는 UNT총장상을 수상하여 차세대를 이끌어갈 지휘자로 주목을 받았다. 귀국 후 부천시립합창단과 안양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등을 객원지휘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지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인 조익현 박사는 협성대학교 합창지휘과 겸임교수와 장로회신학대학교 합창지휘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 합창 및 지휘이론과 실기를 지도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 합창음악의 본질은 “들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조익현 박사는 이 시대에 합창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서로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남을 더 배려하는것, 그래서 자신을 조절하는 마음이 바로 합창음악의 중심에 있기 때문임을 말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합창음악은 살아나고 그 음악을 통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짐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Program

I. Fortuna imperatrix mundi

(운명, 세상의 여왕이여 from Carmina Burana) | Carl Orff / 내 물빛의 사랑

1. O Fortuna (오 운명이여)
2. Fortune plango vulnere (운명의 상처에 슬퍼하며)
_ 두대의 피아노, 타악기, 오르간

II. 백두산아 | 이순교

_ 피아노, 오르간, 팀파니, 대북, 공, 스네어드럼, 드럼

III. Leonardo Dreams of His Flying Machine

(레오나르도가 비행기를 꿈꾸다) | Eric Whitacre

_ 탬버린, 핸드드럼

IV. The Settling Years(서부개척시대) | Libby Larsen

1. Comin' to Town(약당들이 몰려온다)
2. Beneath These Alien Stars(이 신비한 별들 아래서)
3. A Hoopla (열광)
_ 피아노, 목관5중주: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버순, 혼

V. Finale

1. 음악은 언제나 당신 곁에 | John Rutter
2. 내나라 내겨레 | 송창식, 백현주 편곡
_ 피아노와 목관5중주, 타악기

Performance Guide

2015. 1. 20 (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5천원(초등학생이상 관람가)

※ 초등학생은 가급적 2층에서 관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울 산 시 립 무 용 단 기 획 공 연

新 비나리



한국 국악계의 전성기를 이끄는 남상일 & 오정해의 입담 넘치는 진행!!

김덕수사물놀이패와 지역 예술인, 울산시립무용단이 함께 꾸미는 우리 소리와 아름다운 춤사위,

울산시립무용단 2015 첫 무대

Program

지휘_이용탁 / 진행_남상일 오정해

- 국악관현악『남도아리랑』 / 작곡: 백대웅
- 노래곡『달맞이 꽃, 박타령』 / 서진실
-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 박미서, 서순화
- 노래곡『아리랑 메들리, 가요메들리』 / 남상일
- 노래곡『홀로 아리랑』 / 오정해
- 사물놀이협주곡『신모듬』 / 김덕수사물놀이
- 심청가 中『심봉사 눈 뜨는 대목』 / 이선숙
- 비나리 / 김미자, 울산시립무용단
- 강강수월래 / 울산시립무용단(구음:김소영민족소리원)
- 태평무 / 울산시립무용단
- 한국의 멋 / 남상일, 오정해
- 비 상(복의 향연) / 울산시립무용단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공연으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이 한국 국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남상일 오정해의 입담 넘치는 진행과 김덕수사물놀이패 특별출연으로 더욱 신명나는 2015년 첫 무대를 오는 1월 12일(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춤사위와 국악선율, 민요 등이 어우러지는 『新 비나리』로 연다.

울산시립무용단 김상덕 예술감독 겸 안무자가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은 2015 을미년 새해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국립창극단 음악감독을 역임한 이용탁씨의 지휘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에 취하게 하는 대규모 국악관현악곡 '남도아리랑'로 웅장하게 출발한다.

이어 퓨전국악으로 국악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서진실씨가 특별출연해 '달맞이 꽃', '박타령'으로 흥을 돋우고, 왕성한 방송활동으로 국악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이번 공연의



Performance Guide

2015. 2. 12(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만 5세이상 관람가)



01



02



03



04

01_김상덕 02_오정해
03_남상일 04_김덕수

진행을 맡은 남상일씨, 오정해씨가 신명나는 가락으로 ‘아리랑 메들리’, ‘가요 메들리’, ‘홀로 아리랑’을 열창한다. 그 밖에 경기민요보존회 박미서 울산지부장, 온누리국악원 서순화 원장이 무대에 올라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한국국악협회 대구지부 판소리 분과 이선숙 위원장이 『심청가』 中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을 선사한다.

또한, 흥이 넘치는 사물놀이로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김덕수사물놀이패가 농악장단과 무속장단이 어우러져 여러가지 독특한 리듬형태를 보이면서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의 절정의 조화를 보여주는 ‘신모듬’으로 객석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끈다.

무대 위에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처럼 선이 아름다운 전통춤의 한마당이 될 2부 순서는, 울산시립무용단원들이 객석에서부터 분위기를 띄우며 무대 위로 이동하면서 길놀이를 펼

치고, 이어 관객들의 액운을 몰아내고 한 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前 한국무용협회 울산지회장을 역임한 김미자씨와 함께 꾸미면서 흥겹게 출발한다.

그 밖에도, 보름달 아래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들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빙글빙글 도는 놀이에서 출발한 ‘강강수월래’, 궁중복식을 입고 경기도 지방의 무속장단에 맞춰 의젓하면서도 가볍고 절도있게 내딛는 발디딤새가 멋스러운 한영숙류 ‘태평무’, 형형색색의 향기로운 꽃의 향연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움과 굳건한 도전 의지를 천명하는 타악기의 거칠고 웅장한 두드림으로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을 담은 ‘비상’ 등 전통의 아름다움과 창작의 역동성이 어우러지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새해 새 출발을 응원한다.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기획공연

모차르트에 빠지다

울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모차르트 특유의 낭만적인 아름다운 선율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다.

송유진 부지휘자가 자휘봉을 잡고 엄청난 기교와 감성있는 소리를 가진 연주자로 유명한 애리조나 주립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플루티스트 '브라이언 루스'와 조우한다.

Performance Guide

2015. 1. 28(수)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지휘 송유진(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협연 플루트 브라이언 루스





송유진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Program

■ 모차르트 / 서곡 마적(魔笛)

Mozart / Overture to Die Zauberflöte k620

■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제2번 D장조 k314

Mozart / Flute concerto No.2 in D major k.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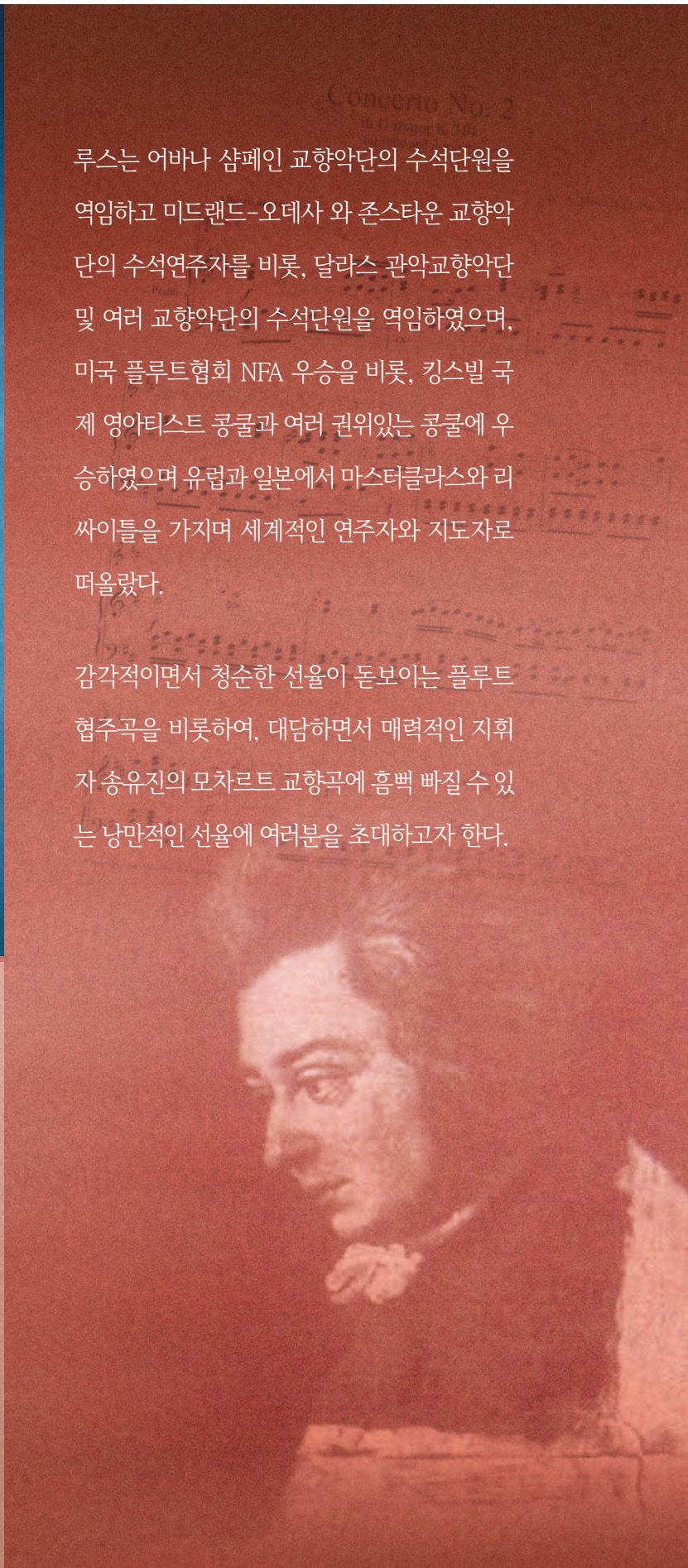
- 휴 식 -

■ 모차르트 / 교향곡 제40번 g 단조 K550

Mozart / Symphony No. 40 in g minor k550

루스는 어바나 삼페인 교향악단의 수석단원을 역임하고 미드랜드-오데사 와 존스타운 교향악단의 수석연주자를 비롯, 달라스 관악교향악단 및 여러 교향악단의 수석단원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플루트협회 NFA 우승을 비롯, 킹스빌 국제 영아티스트 콩쿨과 여러 권위있는 콩쿨에 우승하였으며 유럽과 일본에서 마스터클래스와 리사이틀을 가지며 세계적인 연주자와 지도자로 떠올랐다.

감각적이면서 청순한 선율이 돋보이는 플루트 협주곡을 비롯하여, 대담하면서 매력적인 지휘자 송유진의 모차르트 교향곡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낭만적인 선율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기획전시 '빛의 현대 예술전' 전시장 전경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개관 20주년

2015년도 기획전시 계획 확정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교차
적극적인 지역작가 창작지원 전시 확대
특성화된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품격 높은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15년 기획전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에는 전국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하는 「한국 구상미술 초대전」, 평면,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한국미술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빛의 현대 미술전」,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세계 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전」, 지역예술 창작지원을 위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지역 작가 초대전」,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서양 디지털 미술전」 등 다양한 기획전시를 추진해 왔다.

내년에는 문예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기획전시 「대한민국 국전작가 초대전」, 전국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하는 「한국 구상화가 20인 초대전」과 「한국 서예가 20인 초대전」, 평면, 영상, 설치 등 다

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한국미술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현대미술 초대전」, 지역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 「지역 작가 초대전」,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화속의 인문학 이야기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첫 기획 전시는 1월 22일부터 10일간 2·3전시장에서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인문학 이야기로 풀어가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명화속의 인문학 이야기전」으로 문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전시의 주제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공간 자체가 예술교육 현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스토리텔링형식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1, 2월에 「한국 구상작가 20인 초대전」과 「한국 서예가 20인 초대전」은 제1전시장에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모든 연령층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구상미술 작품과 한문, 한자 그리고 문인화의 한국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에는 전국의 유망작가들의 동시대성을 경험하고 창작적인 작업세계의 확장과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평면, 영상, 설치미술까지 확대하여 풍성한 현대미술작품들로



미술교육 현장전경

「대한민국 현대미술 초대전」이 전시장 전관에서 10일간 열린다. 새로운 소통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1949년부터 198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열렸던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대한민국 국전작가 초대전」을 4월에 제1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 전시회는 대상작가 39명 가운데 초대가 가능한 작가 약 25명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전시회가 열리면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미술사적 의미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울산지역 전시예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야외조각전 전경



국전 6회 대상작가 임직순 作〈여인좌상〉



국전 21회 대상작품 표현승 作〈적〉

일반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작품 교육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여 근대미술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학생들의 단체관람은 사전에 접수를 받아 별도의 시간에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는 전시장 전관에서 「지역 작가 초대전」을 추진하여 문화도시 울산의 기틀을 다져온 지역의 원로작가들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역 전시예술 발전과 기틀을 다지고 있는 각 단체들의 상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울산 전시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차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신예작가를 육성하고자 지역에서 활동 중인 참신하고 독창적인 젊은작가 창작지원 프로젝트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은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문화공간 상설전시장 갤러리 씬에서

젊은작가와 창의적 작품으로 대중에서 다가가고자 전시경험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작가를 선정하여 3월에 합동전을 시작으로 연중 릴레이 형식으로 개인전이 열린다.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에서는 야외조각 전시가 연중 상설로 열린다. 전국과 지역작가들의 다양한 야외조각품이 전시될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은 3월부터 조형예술에서 설치미술까지 전국 야외조각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게 분야를 나누어 진행 된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야외조각 작품과 함께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일상의 여유를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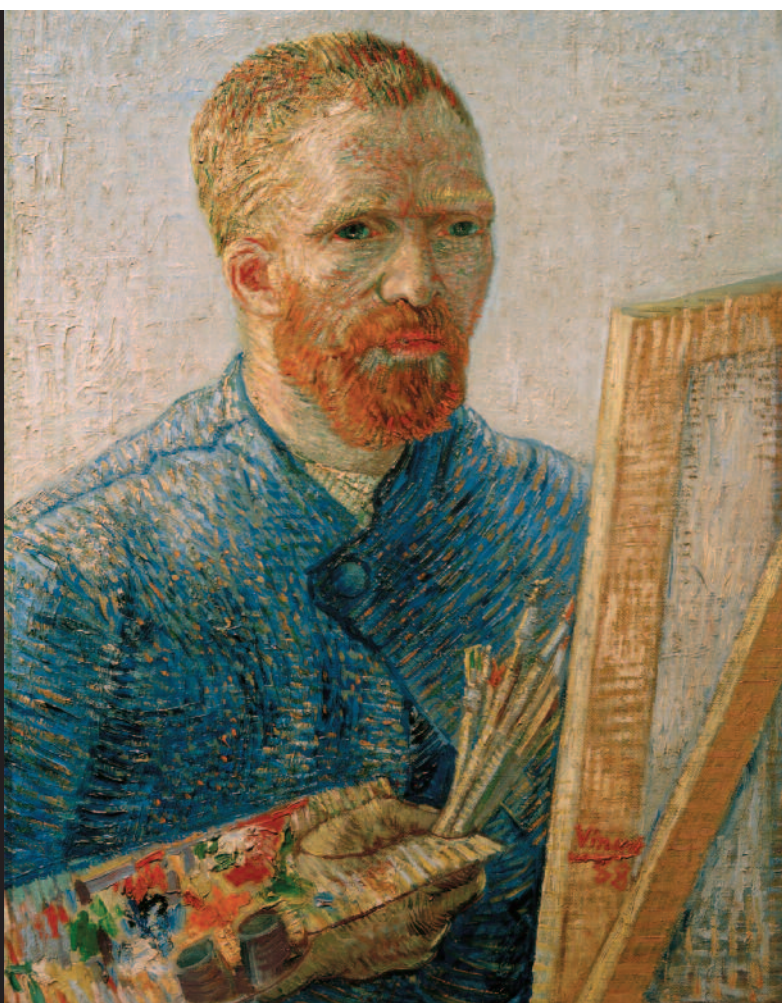
시민들의 열린 문화 사랑방인 예술회관은 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소통하고 공공 전시장으로서의 전문성 있는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지역 전시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미술 교육 프로그램

「명화속의 인문학 이야기전」

역사를 품은 인물, 그 인물을 품은 명화
작품 속에 얹힌 흥미진진한 역사적 이야기들



고 ㅎ작_〈화실의 자화상〉

인류가 만든 최초의 예술작품은 ‘그림’이었다. 그림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던 그림. 지금 우리 곁의 그림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림이 전하는 이야기를 읽고 그림으로 소통하는 인문학 미술교육 프로그램「명화속의 인문학 이야기전」이 문화예술회관 제2·3전시장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명화를 통해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인문학 이야기로 풀어가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이번전시는 명화작품들을 디지털 미디어로 복제한 작품 60점과 인문학 해설보드 전시 및 DVD 영상물 감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전시의 주제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공간 자체가 예술교육 현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Exhibition Guide

2015. 1. 22(목) ~ 1. 31(토), 10일간 / 제2·3전시장

전시내용 : 세계명화 60점, 인문학 해설보드 10점, DVD영상물 감상으로
유명 미술작품을 인간의 사상과 문화이야기로 풀어가는 교육



미술은 글로 표현하기 힘든 독특한 시각경험을 제공한다. 이번전시는 미술과 인문학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흥미로운 전시로 섬세한 관찰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미술이 단지 색다른 경험을 넘어서 이질적이고 낯선 만남은 일상의 통념을 넘어서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적 통찰은 미술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찾는 좋은 안내서가 된다.



전시장에 비치되는 인문학 해설보드는 미술작품에 대한 시각경험과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문학 접목을 시도한다.

신화, 종교, 역사, 철학, 심리학, 과학기술, 경제, 정치, 예술 등의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테마에 어울리는 6~8개의 미술작품과 그 속에 담겨있는 사회나 통념에 대한 관점을 부연한다.



고흐, 램브란트, 잭슨폴록 등 유명화가와 리베라, 도미에, 그로츠 등 조금 낯선 화가들의 작품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 더욱 흥미롭고 인상주의나 초현실주의 등 미술사 시대배경에 대한 쉬운 해설이 함께 있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
들라크루아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보티첼리작 〈비너스의 탄생〉

폴 시냐작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교육적인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미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여 전시기간 동안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뉴미디어를 통한 체험형 미술교육이 매일 2회씩(10:00, 14:00) 총 20회와 일반관람객을 위한 관람해설이 매일 3회씩(11:00, 15:00, 16:00) 총 30회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문화예술회관 누리집(홈페이지)(www.ucac.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2015년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 단체 또는 개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자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미켈란젤로작_〈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작_〈최후의 심판〉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Part-1 예술을 말하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Ⅷ)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예술축제를 찾아서

1·2월의 공연·전시





독일 후기 낭만파 대표 대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IX)

- 01 _ Robert Sterl <슈트가 장미의 기사를 지휘하다>
- 02 _ Anton Faistauer 옥스남작
- 03 _ 후작 저택 아침 모임을 보여주는 작품 : Hogarth '백작부인의 아침모임'
- 04 _ 2014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장미의기사' 중 후작부인의 이별
- 05 _ 에른스트 폰 슈호
- 06 _ 장미의 기사 초연에서 후작부인 역 '마가렛 심스'
- 07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가족

슈트라우스가 '엘렉트라'의 후속작으로 발표한 '장미의 기사'는 슈트라우스의 전 작품 중 가장 유명하며 그의 극음악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우선 이전 오페라들과는 달리 희극이며 화성과 관현악법 등은 점차 바그너의 영향에서 벗어나 슈트라우스 자신만의 개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작품이다.

'엘렉트라' 작곡이 마무리 될 즈음 슈트라우스는 다음 작품으로 모차르트풍의 오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호프만스탈에게 피력했다. 이에 모차르트 오페라를 사랑하는 호프만스탈은 즉각 동의하면서 두사람은 오페라의 대강의 시놉시스까지 상의를 한다. 시대와 공간적 배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모차르트가 살았던 18세기 중엽 빈, 마리아 테레지아가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정시대의 오스트리아 귀족사회로 정한다. 이제 호프만스탈은 구체적인 대본작업에 착수한다.

호프만스탈은 친구인 바이마르의 케슬러 백작에게서 들은 여러 이야기들과 백작이 보여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시종장을 지낸 공작의 일기에서 큰 도움을 얻는다. 이 일기는 1742년부터 1749년까지의 당시 오스트리아 왕실의 풍습과 행사, 빈 귀족들의 생활 방식 등을 속속 밝히고 있어 이런 내용들은 오페라 속에서 다시 생생하게 등장한다. 그 외에도 호프만스탈의 대본 집필 시 많이 참고한 것은 몰리에르의 '프르소냐크씨', '스카팡의 흥계', 보마르셰 '피가로의 결혼', 중세 프랑스 장편시 '장미의 로망' 등 프랑스 문학작품이다. 이렇듯 '장미의 기사' 대본은 프랑스적인 요소와 빈적인 요소가 혼합되었지만 오페라는 빈의 귀족사회를 기반으로 빈 스타일의 정서를 농후하게 나타내고 있다. 호프만스탈은 1908년 초부터 대본을 집필하는 대로 슈트라우스에게 보냈고, 작곡가는 대본을 받는 즉시 작곡에 착수하여 1910년 9월 가르미슈에서 '장미의 기사' 작곡을 완성한다. 1911년 1월26일 드레스덴궁정 극장에서 에른스트 폰 슈호의 지휘로 초연하였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 인근 주민들의 공연 관람 때문에 임시열차를 마련할 정도였다. 이전 오페라 '살로메'와 '엘렉트라'에서는 음악적 기법이 아방가르드의 최첨단이었다면 '장미의 기사'에서는 다시 조성음악과 '멜로디 오페라'로 복귀하였다. '장미의 기사' 선율은 대부분이 규칙적으로 알

●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벤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중이다.



기 쉬운 유도동기를 지니고 있으면서 리듬은 경쾌하고 즐겁다. 이전 두 작품처럼 자유분방하거나, 극도의 긴장감과 대담함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은 대부분 온음계에 기초하여 유연하고 듣기가 편안하다. 관현악법은 대규모이면서도 화성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18세기 중반 빈의 귀족생활의 일면을 그린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바로크시대 귀족사회의 화려함, 여러 가지 연애사건과 밀회를 표현한 퇴폐성, 사랑, 관능, 세월의 흐름, 노쇠와 죽음에 대한 성찰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주인공인 32세의 베르텐베르크 후작부인(소프라노)은 17세의 젊은 귀족 옥타비안(메조소프라노)과 불장난 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후작부인의 친척인 방탕한 옥스 남작(바리톤)이 그녀를 방문한다. 한때 후작부인을 연모했던 옥스 남작은 이제는 벼락부자인 파니날 가문의 딸 조피(소프라노)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조피는 수도원에서 자랐고 열다섯 살이 채 안된 처녀이며, 신부의 아버지 파니날은 돈을 주고 작위를 산 부유한 신흥귀족이다. 옥스 남작은 자신의 약혼녀 조피에게 은으로 된 장미를 가져다 줄 '장미의 기사'를 추천해 달라고 후작부인에게 부탁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미의 기사'란 우리로 치면 함진애비에 해당하는데, 18세기 빈 귀족사회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신랑 쪽 남자 친척이 신부 될 처녀에게 은으로 만든 장미를 혼인의 징표로 전달하면서 정식 청혼의 예를 갖추는 풍습이 있다. 이때 은장미를 들고 오는 친척 청년이 '장미의 기사'다. 실제로 18세기 빈 귀족사회에서 '은장미 전달식'의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대본가가 오페라를 위해 꾸며낸 내용이라고도 한다. 옥스 남작은 돈을 노려 벼락부자 파니날의 딸과 결혼하려는 속셈이다. 후작부인은 장미의 기사로 옥타비안을 추천한다. 은장미 전달식에서 비슷한 또래의 옥타비안과 조피는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다. 바람기 많고 음흉한 옥스 남작은 다른 하녀, 즉 옥타비안이 여자로 변장한 마리안 텔이라는 하녀와 바람을 피우려다가 파니날에게 발각된다. 파니날은 딸을 전통귀족과 결혼시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려 했으나, 사위 될 옥스 남작의 행각을 보고는 단념하게 된다. 이제 옥스 남작과 조피의 결혼은 무산된다. 후작부인은 옥타비안과 자신, 그리고 조피만 남게 되었을 때 옥타비안이 새로운 사랑에 빠졌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젊은 애인이 이제 영원한 짝을 찾아 떠나도록 기꺼이 양보하고 떠난다. 조피와 옥타비안은 '이건 꿈일 거야'라는 아름다운 듀엣으로 끝을 맺는다. 이 오페라는 오늘날까지도 슈트라우스 최고의 성공작으로 꼽힌다. 2차대전 말기 연합군이 슈트라우스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쏘지 마시오! 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요! 내가 '장미의 기사'를 썼소!”라고 할 만큼 유명한 오페라이다.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빈에서 아직 유행하지 않았던 왈츠를 이 작품에서 시대 상황에 맞지않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평론가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여기서 왈츠는 빈풍의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모차르트 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젊은 귀족 옥타비안 배역이다. 원래 소프라노 배역으로 작곡했지만, 후작부인과 음색을 달리 하기 위해 거의 메조소프라노가 남성 여자의 바지역할인 옥타비안을 맡는다. 이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10대 젊은 미소년 귀족 케루비노를 그대로 연상시킨다. 대본가 호프만스탈은 몰리에르의 희극에서 옥스 남작 역할의 호색한 캐릭터를 구상했고, 슈트라우스는 베르디 최후의 작품 '팔스타프'의 음악을 본 따 옥스 남작의 음악을 표현하였다. 아름다운 아리아들도 많이 등장한다. 후작부인의 거실에서 이탈리아인 테너가 부르는 '내 가슴은 견고하게 무장한 채 사랑을 거부했네 Di rigori armato il seno', 후작부인이 자신이 늙어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져서 부르는 '시간이란 묘한 것 Die Zeit, die ist ein sonderbar Ding', 옥타비안이 은장미를 전달하면서 천상의 행복을 표현하는 듯, 꿈결 같이 소피와 부르는 2중창 '제가 이 영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Mir ist die Ehre widerfahren', 옥스 남작이 다른 하녀와 바람피울 생각에 흥에 겨워 부르는 유명한 왈츠 '내가 없으면 그대는 Ohne mich, ohne mich' 등등이 위의 내용에 맞추어 등장한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베르나르 팔리시의
시골풍 도자기

●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판 1

베르나르 팔리시 기념우표

도판 2

알렉상드르 에바리스트 프라고나르(Alexandre Évariste Fragonard),
〈자기 집의 식탁과 마루를 불태우는 베르나르 팔리시(Bernard Palissy
Burning His Home's Tables and Floorboards)〉, 1829년.

도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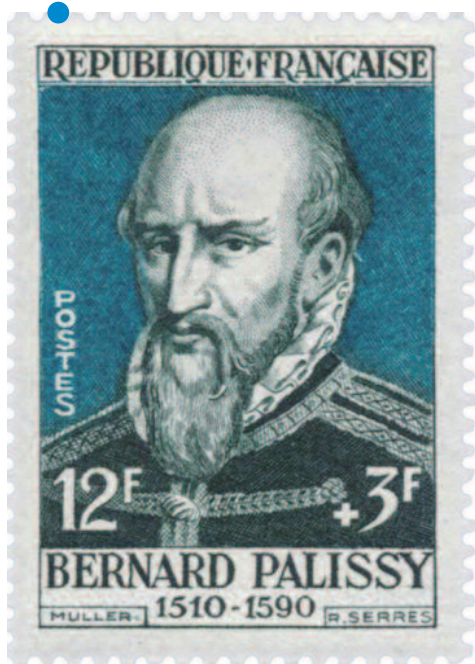
베르나르 팔리시, 〈도아리를 든 뱀이 있는 집사〉, 1570~90. 토기에
납 유약, 직경 26.7 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도판 4

베르나르 팔리시, 〈시골풍 도자기〉, 16세기 말. 토기에 납 유약, 53x40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르네상스 시기 자연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와 책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특히 실용적인 토목이나 건축, 천문학이나 의학, 그리고 공예 분야에서는 더욱 이런 움직임이 빨리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연의 모든 것은 조물주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고, 그 원리를 알아내는 것 또한 신을 예찬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16세기 프랑스의 도공 베르나르 팔리시(Bernard Palissy, 1510~90, 도판 1)의 도자기에서도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도자기에 바르는 유약의 비밀을 풀기 위한 노력이 가장 잘 알려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 유리 채색 기술을 익혔고, 그 다음에는 측량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리시는 우연히 이탈리아제의 새하얀 도자기 컵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랑스의 도공들이 기껏해야 조잡한 웅기밖에 만들지 못할 때,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유약을 바른 도자기는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그는 유약의 성분을 추정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해나갔습니다.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가루로 빻아 질 그릇에 뿌리고 직접 제작한 가마에서 구웠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재료, 땀과 노동을 낭비했지만, 그의 실험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을 뿐입니다. 몇 달 몇 년간 이런 시도가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지쳐갔

도판 1



도판 2





도판 3



도판 4

고 빛까지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땀감이 떨어지자 팔리시는 정원의 울타리를 뽑아서 가마에 넣었고, 그것도 부족하자 식탁과 선반을 부수어 땀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도판 2). 이런 끈질긴 노력을 통해 마침내 유약의 비밀이 그에게 드러났지만, 가마가 폭발하면서 반 년 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공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측량 일을 다시 하여 번 돈으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20여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도기를 만드는 흙, 유약의 특징과 색을 내는 방법, 가마의 제작법과 적당한 온도를 맞추는 법 등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유약을 발라 광이 나는 도기 중, 특히 그는 자연물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8세기의 자연학자 뷔퐁이 말했듯 그의 도기는 “대자연같은 위대한 자연주의자들 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걸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파충류와 물고기, 식물, 조개껍질 등을 소재로 한 그의 도자 작업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아직 살아 있는 생물의 본을 떠서 표면의 질감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의 캐스팅 도자는 그에게 “시골풍 도자기의 창안자”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도판 3). 친구교도 간의 종교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 프로테스탄트였던 그는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가지 고초도 겪었습니다. 이단으로 낙인찍혀 보르도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후원자인 세도가 몽모랑시 백작과 모후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도움으로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들의 집의 정원에 있는 그로토(장식 동굴)를 도자기로 만든 갖가지 동식물과 광물로 장식하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의 화려한 도자기는 굉장히 독특해 보입니다. 접시나 주전자 같은 일상용품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표면에는 갖가지 자연물들이 붙어 있어 실용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의 도자는 수집가들이 장식장에 넣

어 두고 자랑으로 삼는 희귀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서양의 기독교 문명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상기시켜 금기시되던 뱀도 그의 도자기에서는 경이로운 형태를 지닌 신의 피조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그에게 명성과 권력자의 비호를 동시에 안겨준 정원 그로토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바위나 산비탈을 파서 만드는 동굴과 달리, 정원 속의 그로토는 벽돌 등을 쌓아 만든 인공적인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팔리시는 여기에다 그가 도자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식으로 사방을 덮어서, 자연을 모방했으나 매우 경이롭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로 타원형의 접시 위에 여러 가지 동물과 조개껍질, 식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그의 시골풍 도기에는 그가 평생 동안 추구한 자연, 즉 신의 피조물의 모방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도판 4). 물고기와 도마뱀, 개구리, 가재, 조가비와 식물의 부조가 접시 위에 배치되었고, 코발트블루 색으로 칠해진 조약돌 위에 꽃과 식물이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듯합니다. 실제의 살아있는 식물이 놓인 줄 알았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정교한 표면은 그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던 캐스팅 기법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의 도자 작업이 이렇게 보이는 데에는 섬세한 형태뿐 아니라 생생한 색채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는 탁한 느낌을 주는 기존의 유약 대신에 납을 섞은 유약을 사용할 때에야 색이 투명하고도 정교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약에 여러 가지 광물질(주석, 페리코르 석, 수산화칼륨, 철 등)을 섞어 다양각색의 색을 냈는데, 문제는 이 광물질들이 녹는 온도가 각각 제각각이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의 경쟁자들이 이를 모방할 것을 염려하여 자세한 방법은 결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자기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별인 여러 가지 강연 활동과 저서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인 자연과 그 자연의 추구 방식으로서의 모방에 대한 관심의 일면을 반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의 예술과 과학, 종교의 발달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작업을 통해 도자 또한 단순한 장인적 기술 수준을 벗어나,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팔리시는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다 바스티유 감옥의 죄수로 일생을 마쳤지만, 그의 영웅적인 노력과 믿음, 탐구 정신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나큰 감동을 줍니다.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자유로운 영혼 카르멘

● 글 김수연 KBS 울산라디오 「러브 클래식」 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몇 해 전인가
무용극으로 '카르멘'을 본 적이 있다.
스페인 플라멩코 발레단의
공연이었는데 플라멩코의 노래 형식
칸테(Cante)는 낯설었지만
공연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이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다.



오페라 '카르멘'의 주옥같은 아리아 선율이 흐르고 여기에 바일레(Baile, 춤), 토케(Toque, 기타 연주) 그리고 플라멩코 고유의 박수 소리인 팔마스(Palmas)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관능미가 엄청났다. 옆 가리마를 타고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은 채, 무대에 홀로 선 카르멘.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더욱 농염해 보였고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에 따라 카르멘이 리듬을 타자 그 몸짓은 뇌쇄적이었다. 붉은 빛깔의 치마가 몸짓에 따라 펄럭대는 모습도 무척 섹시했고 조명 때문이었을까 몽환적이고 화려하게 느껴졌다. 왜 카르멘을 팜파탈(Femme fatale)의 전형이라고 하는지, 카르멘이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묵직한 느낌을 받았었다.

비제(Georges Bizet, 1838~1875)의 오페라 '카르멘'은 1875년 3월 3일 파리의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됐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지만 당시에 오페라 '카르멘'은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오페라였고 충격 그 자체였다. 여주인공도 소프라노가 아닌 메조 소프라노였고 캐릭터도 오페라 여주인공의 전형인 청순가련형의 인물이 아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집시였다.



“사랑은 반항하는 새,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요.
본인이 거절하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리 불려도
소용없습니다. 협박도 기도도 안 통해요.”

이것은 오페라에서 카르멘이 첫 등장하며 부른 ‘하바네라(Habanera)’의 가사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여자가 남자를 겨냥해 얼마든지 부를 수도 있는 노래라고도 생각되지만 19세기 그것도 안달루시아의 집시, 최하층 노동자 계급의 여자가 이런 노래라는 부른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인 일이었다.

당시 집시는 유럽 전역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소수 민족으로 천대와 박대를 받는 대상이었다. 때문에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도둑질이나 밀수, 암거래 같은 밑바닥 생활뿐이었다. 그러다보니 집시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신분의 카르멘이 자신을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노래하고 남자가 아무리 자신을 원해도 자신은 그 누구의 손아귀에도 잡히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관객,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거기다 카르멘이 일하는 담배공장은 당시 치참한 작업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공장 내의 뜨거운 열기 탓에 옷을 탈의해야만 작업이 가능했고, 때문에 그곳의 여공들은 자연히 남자 감독관들로부터 농락의 대상이 됐다.

이런 사실이 당시 익히 알려졌었던 터라 파리의 중심지 극장에서 담배공장의 집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가 얼마나 파격으로 다가왔는지 짐작이 될 것이다. 더구나 초연이 된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은 가족의 문화 공간이자 젊은 남녀의 맞선 장소로 이용되던 곳이었으니 오페라 ‘카르멘’이 관객들에게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연 당시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에게는 음악적으로 대단한 찬사를 얻었지만 관객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아니 마음을 얻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관객들은 아주 냉담하게 돌아섰다.

카르멘은 자신에게 잘 보이려하는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유독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는 군인 돈 호세에게 호기심을 느꼈고 약혼녀가 있다는 호세에게 도발에 가까운 유혹을 했다. 그리고 점점 때문에 군대로 복귀해야 하는 그를 협박하다시피 하며 탈영을 시켜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는 등 그를 점차 파멸의 길로 이끌더니 나중엔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그를 떠났다. 결국 반듯한 청년이었던 호세는 절망감에 빠져 끝내는 카르멘을 살해하기에 이르는데 방탕한 여주인공에 퇴폐와 향락이 들끓고 거기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오페라는 그야말로 불온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오페라 ‘카르멘’은 초연 후 10여 년간 파리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 사이 오페라 ‘카르멘’의 초연 실패는 비제에게 엄청난 패배감을 느끼게 했고 충격이 컸는지 비제는 초연 3개월 후 36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생을 달리하고 말았다. 다행히 비제가 죽기 전날 체결한 오스트리아 빈 공연이 그의 사후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하나 둘 공연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극의 내용은 어둡고 무겁지만 비제가 경쾌한 선율로 풀어낸 음악과 잘 어우러져 호평이 이어졌고 전통적인 오페라의 형식과 규범을 벗어난 이 작품은 결국 파리의 주요 오페라 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도 인정을 받게 됐다.

2015년 새해를 열면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 합창’의 힘찬 선율을 듣는다. 여전히 카르멘하면 섹시 심벌, 팜프 파탈의 상징으로 이야기되지만 그녀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자유가 어떤 의미였는지, 당시 시대적으로 제한받았던 여성과 노동자계급의 권익 신장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는지 카르멘 행보의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도발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카르멘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 더해진 무대가 늘 기다려진다.



한국 공연 10주년 뮤지컬 〈헤드윅〉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

2014년 우리나라 공연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성적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거침없이 쏟아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메인 테마든 곁다리든, 남성미 물씬 풍기는 남자배우들이나 아니면 여자보다 예쁜 남자배우들의 등장으로 희석이나 착시를 피했든, 어쨌든 지난해 국내 무대에는 동성애를 다루거나 트랜스젠더(여장 남자)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7년 초연 때부터 화제가 됐던 뮤지컬 〈쓰릴 미〉는 물론이고 연극 〈M.Butterfly〉, 음악극 〈두결한장〉, 뮤지컬 〈헤드윅〉, 〈프리실라〉, 〈킹키부츠〉, 〈라카지〉 등이 공연되면서 남자배우들 사이에서는 동성과 입을 맞추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할 정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제가 지난 한 해 이 모든 공연장을 쫓아 다니며 했던 생각은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객석에 앉은 관객들도 이러한 소재와 표현에, 그리고 그 익숙지 않은 무대의 숨은 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요, 지난 2007년 〈쓰릴 미〉가 초연될 때만 해도 동성애가 전면으로 나온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큰 화제가 됐고, 더구나 남자배우들끼리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동성의 키스 신도 초연 때는 없

다 양코르 공연에 가서야 등장한 겁니다. 그랬으니, 그랬던 시절에 남자배우가 여장을 하고 파격적인 소재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혼자 두 시간을 끌어나가는 무대는 모험을 넘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했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뮤지컬 〈헤드윅〉입니다. 무려 2005년 4월에 국내 초연된 참으로 용감한 작품. 하지만 이후 통산 1,500여 회 공연을 이어가며 오늘날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니 낯선 포장 뒤에 숨은 결국은 우리 이야기를 볼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한 든든한 큰언니 같은 작품이죠.

The Angry Inch

과장된 메이크업, 부풀린 가발, 거북스러운 옷차림. 아무리 배우라지만 그들에게도 이런 분장은 분명히 도전일 것입니다. 제 모를 하는 건 기본이라고 해요. 남자배우들은 가슴에 보정물을 넣고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한껏 요염한 몸짓과 말투로 관객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없이 꺼내는 그들의 이야기는 겉모습만큼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죠.

독일 분단시절, 동베를린에서 태어난 소년 한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내쫓고 더없이 냉정해진 어머니.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한셀의 유일한 친구는 오븐 속에서 몰래 듣는 미군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록 음악이었습니다. 암울한 동독을 탈출하고 싶은 한셀에게 어느 날 미군 루터가 접근하죠. 함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자는 겁니다. 단 한셀은 여성이 돼야만 했습니다.

한셀은 성전환수술을 받고 가발을 쓰고 어머니의 여권을 빌려 헤드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싸구려 수술 탓에 한셀의 잘려 나간 중요 부위에는 일 인치의 살덩이가 남게 되고, 수순처럼 그의 또는 그녀의 남편 루터는 헤드윅을 떠납니다. 헤드윅은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며 어긋난 꿈과 성난 삶에 대한 분노를 ‘앵그리 인치(Angry Inch)’라는 밴드를 통해 분출합니다. 그러던 중 보모로 만난 16살 소년 토미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헤드윅은 록 스타의 꿈을 키우는 토미가 자신의 진정한 잃어버린 반쪽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랑의 환희도 잠시, 토미는 헤드윅의 몸에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일 인치의 살덩이를 보고 헤드윅을 떠나죠. 헤드윅의 노래까지 훔쳐서요. 운명의 장난처럼 토미는 헤드윅의 음악으로 일약 록 스타가 돼서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서고, 헤드윅은 토미를 따라다니며 그 주변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공연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은 바로 헤드윅과 앵그리 인치 밴드의 공연에 와 있는 겁니다.

The Origine Of Love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보면 인류는 원래 두 개의 머리와 네 개의 팔다리를 가진 완전한 존재였는데, 각각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세 부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스스로의 완전함으로 교만해지자 신이 번개를 내리쳐 그들을 둘로 쪼개어 버린 것이죠. 반으로 갈라진 불완전한 존재로서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숙명을 노래한 것이 바로 <헤드윅>의 메인 테마곡 ‘사랑의 기원(The Origine Of Love)’입니다.

록 뮤지컬 <헤드윅>은 헤드윅과 앵그리 인치 밴드의 콘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인생이 꼬여버린 동독 출신 그 혹은 그녀의 공연을 관람하는 극 중의 또 다른 관객이 되는 셈입니다. 인기 남자배우들의 여장, 강렬한 록 사운드로 관객들을 유인하지만, 동성애와 드래그퀸, 거친 입담과 요란한 분장으로 조금은 불편한 선입견을 안게 하지만, 결국 여자도 남자도 아닌 헤드윅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한 사람의 깊은 상처와 고통, 방황과 아픔을 만나는 것이 뮤지컬 <헤드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찾아,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아니, 결국 나 자신을 찾아 평생을 헤매는 불완전한 영혼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HED WIG



당신의 헤드윅은?!

록 뮤지컬 〈헤드윅〉은 1994년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나란히 앉게 된 두 남자의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극을 쓴 존 카메론 미첼과 음악을 맡은 스티븐 트레스크쥬. 1998년 뉴욕에서 초연된 〈헤드윅〉은 예상외의 성공으로 각종 매체에 소개되고 2000년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존 카메론 미첼이 직접 감독과 주연을 맡아 2001년 선댄스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과 관객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2005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뮤지컬 〈헤드윅〉에는 오만석, 조승우, 송용진, 김다현 씨가 파격적인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초연 멤버를 비롯해 엄기준, 송창의, 김수용, 이석준, 조정석, 최재용, 윤도현, 김동완, 박건형, 손승원 등 모두 18명의 헤드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주년 기념 뮤지컬 〈헤드윅〉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간 이 무대를 스쳐간 인기 헤드윅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매일 밤 나이라도 특징도 제각각인 ‘헤드윅’의 특별한 무대를 만나는 재미는 〈헤드윅〉 골수팬들에게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전국 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헤드윅은 초연 때부터 참여하고 있는 송용진 씨와 김다현 씨인데요.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공연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시즌에 참여한 송용진은 헤드윅 팬들 사이에서 ‘송드윅’으로 불리는 베테랑 뮤지컬배우죠. 실제 자신이 결성한 록밴드에서도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조금은 신경질적 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헤드윅을 선보여 왔습니다. 역대 가장 미모가 출중하다 평가받고 있는 ‘다드윅’ 김다현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가장 어여쁜 헤드윅으로 꼽히는데요. 마른 몸에 고운 선을 가진 얼굴 때문인지 그는 지난해 〈M.Butterfly〉 〈헤드윅〉 〈프리실라〉 〈라카지〉까지 연달아 참여하며 일 년의 절반 이상을 여장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록밴드 ‘야다’의 보컬 출신이기도 한 그는 우아한 자태 속에서도 강렬한 무대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죠.

저는 취재 때문에 헤드윅을 연기했던 많은 배우들을 만나왔는데요. 그들은 하나 같이 말합니다. 단순히 여장이나 파격적인 의상, 강렬한 음악에 끌려 〈헤드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요. 그 너머에 있는 인물의 매력, 작품의 매력에 이끌렸다고요. 여러분도 그 매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트럼펫 앙상블의 밤

공연정보 1. 17(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트럼펫 앙상블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트럼펫 협주곡 및 영화음악, 앙상블을 통해 울산지역 트럼펫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JCN 울산어린이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 18(일)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JCN 울산중앙방송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기량을 선보였던 JCN 울산 어린이합창단의 공연

2015 울산남구문화원 신년 음악회

공연정보 1. 21(수)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문화원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남구문화원 회원 신년 발표회로 매직난타, 가야금, 판소리, 처용비보이, 경기민요 공연

뮤지컬 “헤드윅”

공연정보 1. 24(토) 15:00, 19:00 대공연장
 1. 25(일) 14:00,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ubc 울산방송
입 장 료 V석:77,000원 R석:66,000원
공연개요 1998. 2. 14. HotelRiverview를 개조한 제인스트리트씨어터에서 역사적인 헤드윅 공연시작 이후 지금까지 수십개국에서 공연되며 사랑받고 있는 세계적인 작품

이은경 피아노 독주회

공연정보 1. 29(목)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이은경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자와 함께하는 피아노 독주회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공연정보 1. 30(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손강지선생님 SMI클래스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차세대 음악계 중심이 될 울산 출신 영아티스트가 더 큰 꿈을 꾸도록 응원하는 뜻 깊은 음악회

울산Fun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공연정보 1. 31(토)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Fun오케스트라
입 장 료 전석 5,000원
공연개요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 특별음악회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정보 1. 31(토) 14:00, 19:00 대공연장
 2. 1(일) 16: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매일신문사
입 장 료 R석:99,000원 S석:77,000원
 A석:55,000원
공연개요 울산에서는 처음 공연되는 가족뮤지컬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공연정보 2. 3(화) 10: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키즈샘
입 장 료 전석 5,000원
공연개요 여느 아이들과 다를바 없는 까를로가 피노키오가 되어 동화 속 여행을 즐기며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이야기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TV유치원

파니파니 팼팼의 안전교육

공연정보 2. 4(수), 5(목) 11:00, 13: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주)푸른교육
입 장 료 전석 3,000원
공연개요 교통을 주제로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놀이와 재미로 교육하는 안전교육
뮤지컬

이수진 · 홍인하 듀오 리사이틀

공연정보 2. 6(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이수진 · 홍인하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피아노, 클라리넷 독주회

제13회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2. 7(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정서함양에 도움
을 주는 곡으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살기좋은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함

카이크루 & 카이아카데미 콘서트

공연정보 2. 8(일) 14: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화목봉사회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울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카이크루 정기공연

울산극동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2. 10(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극동방송 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청소년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단체 활동
과 다양한 무대경험을 통해 바른 인성과
사회성, 자신감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며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
주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콘체르티노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2. 14(토) 16:00,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콘체르티노앙상블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해설이 있는 실내악 향연

이나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

공연정보 2. 24(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이나리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외국 음악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유학 중의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쌓은 지식내용을 귀국
독주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울산
문화예술의 이해와 이미지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제3회 울산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2. 27(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플루트오케스트라
입 장 료 전석 3,000원
공연개요 클래식 및 친숙한 대중곡들을 연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플루트연주를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한사랑 실버합창단 창단 4주년 기념공연

공연정보 2. 28(토)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사랑 실버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광역시 노인복
지관과 한사랑 실버합창단을 알리
고, 참여 어르신들에게 합창단 활동
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키며, 손
자·손녀와 함께 합창을 하여 세대
통합 및 노년여가생활에 대한 새로
운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공연

전 시 가 이 드

E X H I B I T I O N

서양화가 김상원 개인전

전시기간 1. 14(수) ~ 1. 19(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김상원)
전시내용 자연에서 보여지는 감동과 아름다움을
현장사생을 통해 표현한 서양화
대작 작품 15점 전시

제3회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처럼

전시기간 1. 14(수) ~ 1. 19(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해남민화 (김영자)
전시내용 울산 시민들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움을
널리 퍼트리하고자 민화, 무명자수,
꽃꽂이 등 60작품 전시

제15회 물보라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1. 21(수) ~ 1. 26(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물보라사진동호회 (이종철)
전시내용 '사람이 있는 풍경'이란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순수창작 사진
작품 45점 전시

제8회 좋은 사람들전

전시기간 1. 28(수) ~ 2.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좋은 사람들 (권영태)
전시내용 1년간의 작품 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작업의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회원들의 순수 창작 서양화
작품 45점 전시

사진작가 7인의 여행사진전

전시기간 2. 12(목) ~ 2. 17(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뉴비전아트센터 (안남용)
전시내용 울산의 사진작가 7명이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찍은 그리스의
유적 및 산토리니의 환상적인 풍경
사진 30점 전시

박상규 구상회화전

전시기간 2. 25(수) ~ 3.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박상규)
전시내용 자연 풍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유화
구상작품 총 35점 전시

제5회 문수실버작품전시회

전시기간 2. 25(수) ~ 3.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문수실버복지관
전시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서양화, 한국화 작품 등 60점
전시

제8회 비전 인 모션 사진전

전시기간 2. 25(수) ~ 3.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뉴비전아트센터
전시내용 울산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작가들이
개인주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사진과 미디어작품 20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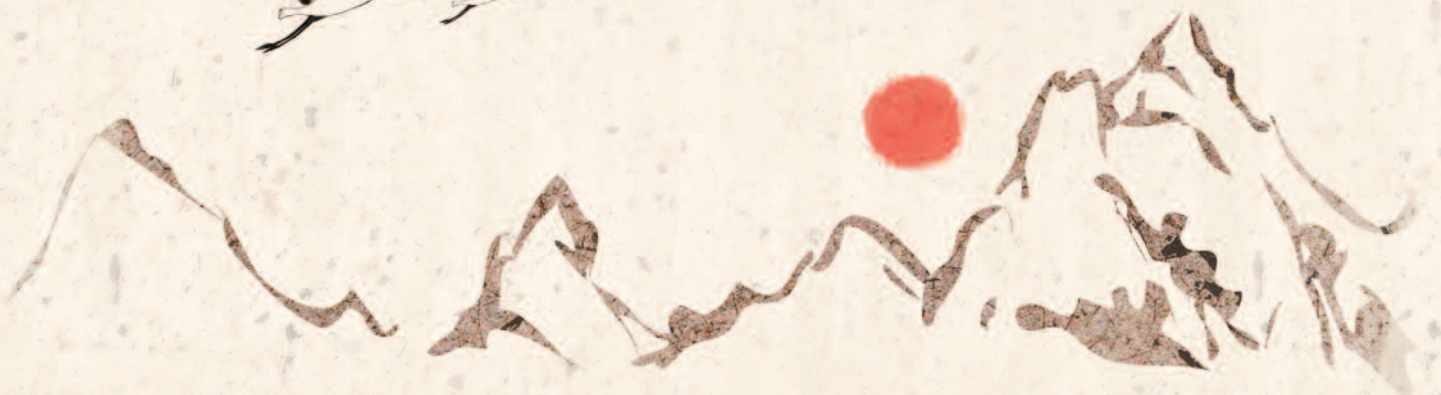


羊



1·2월의 공연·전시

Performances & Exhibition



01 _ 대공연장

02 _ 대공연장

01 _ 소공연장

02 _ 소공연장

01		01	·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2.1(일) 16:00	01	
02		02		02	
03		03		03	
04		04		04	
05		05		05	
06		06		06	
07		07	· 황금연못 2.7(토) 15:00, 19:00	07	
08		08	· 황금연못 2.8(일) 14:00, 18:00	08	
09		09		09	
10		10		10	
11		11		11	
12		12	· 무용단 기획공연 新 비나리 2.12(목) 20:00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 2015 교향악단 신년음악회 1.16(금) 20:00	16		16	
17		17		17	· 트럼펫 앙상블의 밤 1.17(토) 17:00
18	· JCN 울산어린이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1.18(일) 18:00	18		18	
19		19		19	
20	· 2015 합창단 신년음악회 “Pioneer & Dreams” 1.20(화) 20:00	20		20	
21		21		21	· 2015 울산남구문화원 신년 음악회 1.21(수) 19:00
22		22		22	
23		23		23	
24	· 뮤지컬 “헤드윅” 1.24(토) 15:00, 19:00	24		24	· 이나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 2.24(화) 19:30
25	· 뮤지컬 “헤드윅” 1.25(일) 14:00, 18:00	25		25	· 뒤란 2.25(수) 19:30
26		26		26	· 합창단 기획공연 2.26(목) 20:00
27		27	· 교향악단 제179회 정기공연 2.27(금) 20:00	27	· 제3회 울산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27(금) 19:30
28		28		28	· 한사랑 실버합창단 창단 4주년 기념공연 2.28(토) 18:00
29				29	· 이은경 피아노 독주회 1.29(목) 19:00
30				30	·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1.30(금) 19:30
31	·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31(토) 14:00, 19:00			31	· 울산Fun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31(토) 18:00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1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세계 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展 12.30(화)~ '15. 1. 11(일) 13일간					· 전국야외조각 초대展 Ⅲ부 10. 9(목)~ '15. 1. 31(토) 115일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서양화가 김상원 개인전 1. 14(수)~1. 19(월) 6일간	· 제3회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처럼 1. 14(수)~1. 19(월) 6일간				
15						
16						
17						
18						
19						
20						
21				· 제15회 물보라사진동호회 1. 21(수)~1. 26(월) 6일간		
22	· 영화속의 인문학 이야기展 1. 22(목)~1. 31(토) 10일간					
23						
24						
25						
26						
27						
28	· 한국 구상작가 20人 초대展 1. 28(수)~2. 8(일) 12일간			· 제8회 좋은 사람들전 1. 28(수)~2. 2(월) 6일간		
29						
30						
31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2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한국 구상작가 20人 초대展 1. 28(수)~2. 8(일) 12일간			· 제8회 좋은 사람들전 1. 28(수)~2. 2(월) 6일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한국 서예가 20人 초대展 2. 11(수)~2. 22(일) 12일간			· 사진작가 7인의 여행사진전 2. 12(목)~2. 17(화) 6일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박상규 구상회화전 2. 25(수)~3. 2(월) 6일간	· 제5회 문수실버작품전시회 2. 25(수)~3. 2(월) 6일간	· 제8회 비전 인 모션 사진전 2. 25(수)~3. 2(월) 6일간			
26						
27						
28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쉽’,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2만원	1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5만원	2만5천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8만원	4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15만원	7만5천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 산 시 립 무 용 단
기 획 공 연

新 비나리

2015. 2. 12(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